

amagram

Success Partner for a Better Life

Achieve Your Passion

Manage Your Brain 열정에 날개를 달아 주는 두뇌개발

Image Making through Personal Color 이미지메이킹으로 첫눈에 어필하라

Some Like It Hot 여름과 겨울 사이, 내 몸을 위한 건강식

Special Theme

꿈을 이루는 '백만 달러짜리 티켓', 열정

10 OCTOBER / 2007



Contents



2007 AMAGRAM_No.189
O C T O B E R



COVER STORY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까지 지내고 보니 남은 한 해가 짧게만 느껴지시죠? 못 이룬 목표들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아직 가슴 속에 남은 열정을 깨워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사업에서든 취미생활에서든 열정이 깃들어 있을 때 무슨 일든 200% 더 즐거워질 수 있을테니까요.

제품협찬 PDA나라, 펜샵, 북바인더

message	Enhancing Reputation	05
beauty	E. Funkhouser Collection 006	07
special theme	꿈을 이루는 '백만 달러짜리 티켓', 열정	08

products guide

achieve your	열정에 날개를 달아 주는 두뇌개발	14
passion	이미지메이킹으로 첫눈에 어필하라	16
	여름과 겨울 사이, 내 몸을 위한 건강식	18
	암웨이 권	21
	뉴트리라이트 비·디에이치에이 볼렌드	22
amway brand center	암웨이 브랜드 센터(ABC) 체험 프로그램	23
living	10월 사랑 이야기	24
	보이지 않는 위협, 실내공기 오염	25
beauty	과학으로 창조하는 아름다움	26
	완벽한 피부의 꿈, 아티스트리	27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작, 2007 ABI Program	28
	트리타지 1주년 기념 캠페인 수상자발표	30
nutrilite report	<제10편 팀 뉴트리라이트 스폰서링 프로그램> 국내 후원 프로젝트	32
wellness	CLA와 함께 하는 건강한 체지방 감소	34
	뉴트리라이트 씨엘에이	35
new arrival	후아 for you	43



Steve Van Andel_Chairman
Doug DeVos_President

Enhancing Reputation

명성을 드높여 꾸준한 성장을 이루십시오

건실한 사업은 좋은 평판에 기초합니다. 암웨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업일수록 평판에 더욱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리치 디보스와 제이 밴 앤델의 설립 취지를 그대로 따른다면, 암웨이는 명성이 높아짐은 물론 기업 또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 가족, 보상, 희망에 집중하고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한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수준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는 데에서 우리의 명성은 생겨납니다. 이것은 기업의 측면에서는, 정당한 방식으로 사업을 꾸려 나가는 수백만의 IBO 여러분을 위해 우뚝 서서 힘껏 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국에서 그렇게 해 왔듯이 말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규회원을 모집하는데 있어 균형잡힌 사업을 이루게 하기 위해 다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파트너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사업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모습과 이 사업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 평판과 성장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요. 우리 사업과 명성이 드높아지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란히 서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A good reputation is the foundation for any strong business. Our business is no exception. And companies that want to grow by double-digits, like we do, are especially tied to their reputation. If we follow the values that Rich and Jay founded this company on, our reputation and our company will grow. If we all remain focused on freedom, family, reward, hope and if we put a special emphasis on integrity? we can achieve a level of success we never thought possible.

Our reputation is about doing the right thing, even when no one is looking. From the company's perspective, it means standing up and fighting for the millions of IBOs who do this business the right way, like we've done in the UK. And it means partnering with you to help you build a balanced business with product and recruiting. It means building a business that we can all be proud of and tell people that we are partners.

As you continue your journey with us in this business, remember that how we represent ourselves and this company determines the strength of our reputation, and the amount of our growth. We are excited and honored to stand with you as we take our business and our reputation to new heights.

스티브 밴 앤델 / 암웨이 회장

덕 디보스 / 암웨이 · 퀵스타 총괄 사장



2007 AMAGRAM_No.189
OCTOBER

Contents

business guide

special focus	The Year of Pride	36
colorful interview	Same Vision, Different Style-IBO 인터뷰	37
education advice	현명한 부모되기 가 이드@이의 성공, 잠재력 조기 발견이 관건	38
tax information	세테크의 눈을 키 워라 2007 세제개편, 부동산 관련 포인트	40
notice	중개판매 전용 제품 출시 안내	42
rules of conduct	공무원 및 교원 IBO 등록 금지	66

news gathering

product news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에 관한 정보 소개	44
amway news	암웨이의 생생한 최신 소식들	48
ibo plaza news	전국 각 IBO 프라자에서 진행된 이벤트와 다양한 소식들	49

new achievements

interview	수석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8월 1일부)	50
recognition	에메랄드/사파이어/루비/플래티늄/골드 프로듀서/실버 프로듀서 (8월 1일부)	58
schedule	10월 교육일정, ABC 일정표	67

IBO와 함께 만들어 가는 아마그램

아마그램에 대한 IBO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마그램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아마그램을 본 후 느낀 소감 등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접속 경로 : ABN→사이버북→아마그램 페이지의 '나의 의견 작성하기' 버튼 클릭

EDITORIAL 발행·편집인 CEO & Publisher 박세준 _ 편집책임 Managing Director 김일산 _ 편집 Editor-in-Chief 박해영 _ Senior Editor 박해원 _ 취재 News gathering (주)위컴에드 ART & GRAPHIC 디자인 Design (주)위컴에드 _ 사진 Photograph Bis Studio _ 일러스트 Ilust 임영택, 박원철 STYLE 스타일 Food 노다(noda+), Styling 형금(noda+), Styling 심필영 PRINT & OUTPUT 사진채판 Scan & Photo Engraving 명성에드 _ 인쇄 Print 대원문화사, 대영인쇄사 _ 등록번호 서울 라-05179 _ 공급처 한국암웨이주식회사·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성유센터빌딩 (대표전화 : 1588-0080) _ 발행처 (주)위컴에드 _ 발행일 매월 25일 발행

※ 본 잡지에 실린 기사 및 일러스트, 사진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아마그램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위원회의 잡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IBO 전용사이트 _ www.abnkorea.co.kr 퍼블릭사이트 _ www.amwaykorea.co.kr

대한민국직접판매협회
KDSA KOREA DIRECT SELLING ASSOCIATION
한국암웨이에는 한국직접판매협회의 최장사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곡덕영 | 수석 다이아몬드 (2007년 8월 1일부)



“중국이요? 한 달에 두세 번 오가니까, 일년이면 6~7개월 정도는 그쪽에 가서 머무르는 셈이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만 8년째네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하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곡덕영 수석 다이아몬드는 환한 웃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끈기가 숨어 있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듯 했다. 단순한 거리의 문제를 떠나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을까. 더구나 한국에 비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은 중국에

서라면, 하지만 곡덕영 수석 다이아몬드는 미소와 함께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익히는 데만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디서나 마친가지겠지만 낯선 사람이 와서 제품을 전달한다면 누가 믿어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사람들 속에 동화되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여 거절을 당하는 경우, ‘암웨이’가 아닌 ‘나 자신’을 거절한 거라고 생각했기에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 이라고 생각했죠.” ‘암웨이’가 아닌 ‘전달자’를 거절하는 것이기에 사랑 받

결국 성공은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남들에 비해 빠듯해 보이는 스케줄에도 바쁘지 않다고 말하는 곡덕영 수석 다이아몬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한국어와 중국어, 한문 공부 역시 빼놓지 않는다는 그의 이야기에서 시간관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역시 재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휴먼 사업인 암웨이 사업의 기본 정신과 맞닿아 있는, 누구나 가슴에 새길만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남다른 노력을 통해 쌓은 만큼 중국을 오가며 하는 사업의 보람도 훨씬 크다고 이야기 한다. “중국인들에게는 기회가 턱 없이 부족해요. 제가 후원하는 한 파트너는 부모에게도 환영 받지 못한 채 태어나 힘든 노동일을 하며 살고 있었죠.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월급은 고작 8만원에 불과했구요. 하지만 암웨이를 만난 후 3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전달해야죠.” 우리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일화들이 너무도 많아 그는 순간순간 책임을 느끼며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특별한 기회를 통해 사람의 운명 자체를 바꿔 주는 일임을 몸소 확인하다 보니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곡덕영 수석 다이아몬드. 하지만 그는 암웨이 사업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지만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다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함께 전했다.



“사람들은 보통 결과만 보죠. 하지만 결과가 큰 만큼 과정이 어려운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려움이 다 치면 ‘올 것이 왔구나’ 혹은 ‘곧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겨내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요. 암웨이 사업은 떠나지만 않으면 누구나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누구나 이 사업을 꾸준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믿으면 과정 중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 힘들지 만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암웨이 사업을 통해 더 큰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남을 돕는 사업’이 아닌 ‘자신이 필요로워지는 사업’임을 깨닫기 바

Profile

Sign-up 1998. 09
Platinum 2000. 10
Sapphire 2001. 09
Emerald 2001. 09
Diamond 2005. 09
Executive Diamond 2007. 08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언젠가 그는 나를 찾게 되어 서로를 알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사람 역시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란다는 말을 전했다.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폰서나 파트너의 역할을 당연시 생각한다면 사람이기에 서운한 순간도 있었지만, ‘내 사업이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긴다면 도와 주는 스폰서나 파트너가 한없이 고맙게 느껴질 거예요. 모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사업이 더 즐거워질 거구요.” 파트너들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날까지 더욱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겠다는 곡덕영 수석 다이아몬드. 모든 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 암웨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휴먼 비즈니스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을 암웨이 사업의 밝은 전망을 엿볼 수 있었다. ㉠





가뭄에도 그치지 않는 샘물처럼

김수천 & 최종원 | 수석 다이아몬드 (2007년 8월 1일부)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물론, 이 사업을 전달하기만 한다고 힘든 상황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죠. 이 사업은 금방 채집해서 비벼 먹는 상추쌈 같은 사업이 아니라 발효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김장김치와 같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내일을 향한 희망 속에 발효의 시간을 이겨 내다 보면 언젠가 그들에게도 밝게 웃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사업의 전달과 꾸준한 후원, 그것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김수천 & 최종원 수석 다이아몬드는

한 고비를 넘긴 후 또 다른 성공의 문을 연 성취자라기보다 정직하게 심고 거두며 기쁨을 느끼는 소박한 부부의 모습으로 먼저 다가왔다. 아니나 다를까, 최종원 수석 다이아몬드가 바쁜 사업 틈틈이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김수천 수석 다이아몬드는 그 수확물들을 넣어 말리며 남편의 농사에 동참한다고, 그래서인지 이들에게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핀 성취야 물론 기쁜 일이죠.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고 성취를 한다는 것, 정말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취만이 사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

파트너들에게 '언니' 혹은 '이모'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김수천 수석 다이아몬드와 편안하고 재미있는 입담 덕분에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최종원 수석 다이아몬드. 이들 부부가 안팎으로 합심하여 이루어 나가는 암웨이 사업을 가만히 곁에서 지켜 본다면, 누구든 부부가 함께 하는 암웨이 사업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다. 김장김치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김치를 먹는 순간만 생각한다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먹는 순간의 기쁨 역시 훨씬 커지지 않을까요?” 이렇듯 겸허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 덕분인지 김수천 & 최종원 수석 다이아몬드는 암웨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 역시 남달랐다. 암웨이 사업은 '자기 그릇을 키우는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오합지졸'이 모여 더 재밌는 사업이라는 것. “일관된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자칫 잃기 십상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뛰는 사람이 있으면 걷는 사람도 있고, 때로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합지졸'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재촉만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차이를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렇듯 넓은 그릇을 갖게 된 김수천 & 최종원 수석 다이아몬드이지만 이들에게도 힘든 시절은 있었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선천적으로 소박하고 겸손한 심성을 가져서일까. 이들은 마냥 힘들어 하는 대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한 구절처럼 ‘흔들리며 줄기를 굳게 세우는 법을 터득해 간다. 즉 힘든 가운데 중심을 세워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매사 ‘내 탓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 단순한 핀 성취를 넘어, 휴먼사업으로서의 암웨이 사업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



Profile

Sign-up 1998. 02
Platinum 1999. 03
Sapphire 2000. 06
Emerald 2000. 09
Diamond 2002. 03
Founders Diamond 2003. 09
Executive Diamond 2007. 08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쯤이면 자신들을 위해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도 좋을 텐데 김수천 & 최종원 수석 다이아몬드는 나직한 목소리로 남다른 목표를 이야기 한다. “저희는 아직 시냇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뭄에도 그치지 않는 샘물처럼, 조용히 흐르는 깊은 물처럼, 넓은 가슴으로 출렁이는 푸른 바다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고 정진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암웨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예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자신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김수천 & 최종원 수석 다이아몬드. 이들의 마스하고 소박한 삶의 태도를 보며 암웨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와 함께 겸손한 리더의 잔잔하지만 강한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정필순 & 김종호 | 수석 다이아몬드 (2007년 8월 1일부)



“다이아몬드는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도전의식으로 성취해냈다면 수석 다이아몬드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에 옮긴 결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필순 & 김종호 수석 다이아몬드의 환한 미소엔 한 단계 도약했다는 성취감보다는 하나의 과정을 충실하게 마치고 난 후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차분함과 여유가 묻어 나왔다. 다이아몬드까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며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면, 방법을 알고 난 뒤엔 모든 게 일사천리였다. 그렇다고 사업 자체가 순탄하고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동안 쌓인 사업의 탄탄한 기초와 내공이 뒷받침되었고, 다이아

몬드 성취 후 여유를 갖기보다는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한 결과 2년 만에 다시 새로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암웨이 사업에 있어 흔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 “우린 암웨이 재수생들이에요. 10년 전쯤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다졌지만 사정상 2년 정도 사업을 접어야 했지요. 5년 전쯤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배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정필순 & 김종호 수석 다이아몬드는 스스로 ‘암웨이 재수생’ 이라고 말하며 종종 지난 시절의 경험을 자양분 삼

꿈을 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
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
미에서 정필순 & 김종호 수석 다이아몬드의 성공은 어쩌면 당연
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막연한 꿈이 아닌 뚜렷한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 누구나 닮고 싶은
성공자의 모습 아닐까?



아 파트너들과 교류하곤 한다. 한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서 큰 시련에 부딪쳤지만 늘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다시 암웨이에 도전
할 수 있었다는 정필순 & 김종호 수석 다이아몬드. 사업에 재도전하던
초창기엔 이전까지의 낡은 습관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나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그 시절의 어려
움이 있었기에 지금 파트너들이 사업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덕분에 파트너들 사
이에서 '채수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는 정필순 & 김
종호 수석 다이아몬드. "누구나 사업을 하다보면 성장통을 겪게 되지요.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질지
의심하고 걱정할 때가 바로 그럴 때죠. 우리도 같은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결국 성
공이란 나의 생각과 자세에 달려 있지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
엇인지 안다면 믿음대로 꾸준히 행동하는 것만이 정답이지요."



그 믿음과 확신을 주기위해 정필순 & 김종호 수석 다이아몬드는 무엇보다 파트너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
고자 상담과 대화를 많이 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는 일을 제일 우선이라고 말한다. 10년이 넘는 암웨이 사업 경험을
통해 터득한 남다른 성공비결에 대해 묻자 두 사람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경상도 말로 '햇빠'는 거죠. 해버
린다는 뜻이에요. 모두들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대로 꾸준히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이지요.
파트너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요." 두 사람의 지론은 그 어떤 고도의 노하우보다 명쾌하
다. 햇빠는 것! 그 단순 명쾌하고도 핵심적인 행동철학이야말로 두 사람의 강력한 성

Profile

Sign-up 2002. 07
Platinum 2003. 03
Sapphire 2005. 05
Emerald 2005. 09
Diamond 2005. 09
Executive Diamond 2007. 08

**가난하면 용기라도 있어야 한다. 어려움이란 생각과 태도의 문제이다.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성공한 사람에겐 고생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공비결인 것이다. 수석 다이아몬드 성취와 함께 힘든 시절을 거치면서 한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던 아이들 셋과 부모님을 모시고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되어 더 기쁘다는 정필
순 & 김종호 수석 다이아몬드. 두 사람은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한다. 서
로를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늘 파트
너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룰 때까지 암웨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두 사람. 늘 처음처럼 변치 않는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㉔





민숙정 & 이영철 | 다이아몬드 (2007년 8월 1일부)



친구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민숙정 & 이영철 다이아몬드는 핀 성취에 대한 감회를 기쁨과 감동이라는 말보다 아낌없이 지원해 준 스폰서와 파트너, 가족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대신했다. 또 다시 출발선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리더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민숙정 & 이영철 다이아몬드, “저희에겐 익숙치 않은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키우니 행동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나타났죠. 우연한 기회에 만난 암웨이 사업이 이제는 가족 모두에게 절대적인 일이 되었어요.” 이영철 다이아몬드는 지금도 직장생활과 암웨이 사업을 병행하느라 정신 없이 바쁘지만 회사는 본업이고, 암웨이는 주업이라고 할 만큼 그의 열정과 성실함은 삶 자체를 이끌어 가는 에너지가 됐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한 후에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민숙정 다이아몬드 역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가는 기쁨이 가장 소중한 변화다. “자기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를 배려하려는 노력을 통해 오히려 저 자신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평생 열정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진정한 행복이지요.” 눈에 보이는 결과 보다는 암웨이를 통해 발견한 가족과 희망, 신앙, 꿈 등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는 민숙정 & 이영철 다이아몬드, 무엇보다 사업을 통해 만난 파트너들과의 신뢰야말로 소중한 재산이라고 말한다. “팀웍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가치이지요. 사업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공해 나가는 운명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면서 친구같은 리더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㉓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기쁨보다 목표를 성취해낸 스스로에 대한 놀라움이 더 크다는 안은영 다이아몬드. “평범한 주부도 해내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늘 평범하다고만 생각해왔던 그에게 암웨이 사업은 꿈과 도전이란 이름으로 존재를 일깨워주었다. 6년 전, 친구에게 전달 받은 암웨이 사업은 늘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그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기회였다. “제게는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평범한 인생을 물려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괴롭더군요.” 그런 안은영 다이아몬드에게 암웨이의 안정된 수입은 더없는 매력으로 다가왔다. “제품이 좋고 마케팅이 진실하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긍정의 힘이다.

남편의 반대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안은영 다이아몬드는 묵묵히 사업에 임했고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에 두 아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엔 염려를 했지만 엄마가 노력하는 모습에 제 할 일을 스스로 잘 하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몸은 바빠졌지만 아이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늘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이려고 했다는 안은영 다이아몬드. 그래서 파트너들에게도 행동으로서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한다. “부모님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드리고, 아이들에겐 폭넓은 인생을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제 꿈이에요. 하지만 그건 성공과 함께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죠. 제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건 파트너들 모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③

안은영 | 다이아몬드 (2007년 8월 1일부)



New Achievements

EMERALD



2007년 6월 1일부



권주옥 & 김종원 경기 김포시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에메랄드 핀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 끊임없이 상상해 왔기에 현실로 이루어진 지금은 오히려 담담합니다. 생필품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부부 시절, 사는 게 바빠 서로에게 멀어져 가던 차에 만난 암웨이사업은 서로에게 다시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의 관심과 애정을 회복하게 된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를 기다려준 스폰서님, 서로를 배려해주며 함께 성장한 사업자분들과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언젠가는 저희가 받은 것들을 돌려 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김옥주 & 성동진 서울 성동구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우연한 기회로 1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사님을 통해 이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이 사업에서 이런 성취를 해내어 너무나 기쁩니다.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 얻은 값진 열매라서 더욱 보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업의 성장을 바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주변 분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간절함'에는 모든 두려움과 막막함을 넘어서는 힘이 들어 있는가 봅니다. 이 자리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과 부모님, 그리고 아들 호민이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인선 인천 부평구 / 한국암웨이 IBO

에메랄드 핀 성취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느낀 기분은 '정말로 되긴 되는구나'라는 감격이었습니다. IMF 때 위기 의식을 느껴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더 당당한 엄마로 거듭나기 위한 수단, 준비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되면서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믿고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 만족보증제도로 소비자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과 파트너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힘들어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민숙 & 전현구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IBO & 건축업

남편친구의 부인이 두고간 제품 카탈로그에 평소 쓰고 싶었던 제품이 소개되어 있어 이 사업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새 이런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작은 산을 넘은 듯한 뿌듯함과 함께 파트너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사업에 있어 저만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있어 야 할 자리를 꼭 지키며 미팅에 참석하고 파트너 한분 한분을 사랑으로 기다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같은 성공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다려 준 스폰서님과 에메랄드 성취를 눈물로 하나되어 기뻐해 준 파트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성형 & 심진주** 경남 창원시 / 자영업 & 한국암웨이 IBO

전직 간호사였던 저는 뇌성마비 아동들의 복지가 여러 가지로 미흡할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보험 혜택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치료에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희망을 주고자 암웨이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 사업은 비즈니스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간 관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쏟았을 때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말로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몸소 솔선수범하며 보여 주시는 스폰서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오랫동안 같이 해준 파트너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정순 & 장서진** 경남 마산시 /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우선 에메랄드 핀을 성취했다는 게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변화시킨 결과 오늘날 이런 성공이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스폰서님을 믿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성공을 위해 도와 주신 스폰서님의 목표 제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런 성취는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모자라는 나를 믿고 따라와 준 파트너들에게도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혜숙 & 정용호 대구 북구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진행했던 암웨이 사업에서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목표를 성취했다는 사실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자리 매김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미팅에 참석했고, 일관성있게 사업을 진행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슌우화 속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해'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스폰서님께 정말 감사 드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뚝뚝 뭉쳐 저희를 믿어준 파트너 사장님들과 가족들에게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최애숙 & 조경제** 서울 강서구 / 한국암웨이 IBO & 은행원

생계문제로부터 벗어나 해보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자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모여서 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힘든 환경 속에 계신 파트너 분들의 땀방울 하나하나 덕분에 성취할 수 있었던 믿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 사업을 알려 주시고 한결 같은 배려로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MERALD



2007년 8월 1일부



최운주 & 박태현 경기 의왕시 / 한국암웨이 IB0 & 자영업

평범한 저희 부부가 해낼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음을 보여 드리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동시에 성공을 간절히 꿈꾸면서도 기회가 없는 분들께 암웨이사업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암웨이사업은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면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길을 앞서 가신 스폰서님과 가진 상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술선수범해서 보여 주시고 안내해주신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부족한 저희 부부와 팀웍으로 함께 해오신 파트너들, 그리고 항상 묵묵히 믿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최은영 & 기세훈 경기 용인시 / 한국암웨이 IB0 & 컴퓨터 엔지니어

맞벌이 부부생활을 접고 이민을 계획하던 시점에 선배를 통해 처음 암웨이 사업을 접하게 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지 막막했던 때에 암웨이는 제게 삶의 희망이 되어 주었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잃지 말자', '다름을 인정하자', '내 자신을 믿고 사랑하자'라는 원칙을 세워 사업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원했던 핀 성취라서 더욱 기쁘고, 다음 회계연도 목표를 향해 가는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주는 딸아이와 늘 믿어주는 파트너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폰서님, 이 모든 분들이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한윤구 & 박선경 경기 광주시 / 자영업 & 학원강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중 후배로부터 우연히 사업설명을 듣고 여러 권의 관련 서적을 읽고 나서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믿음, 그리고 신뢰로 굳건히 밑바탕을 다진 다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 핀의 성취가 저희만의 성장이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이뤄낸 성장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한가지 꿈이 더 있다면, 평생 암웨이사업을 하면서 지금 함께 하는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과 평생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이 사업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SAPPHIRE



2007년 8월 1일부



강개필 & 김용구
울산 남구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김광도
경남 양산시
한국암웨이 IBO



박은진 & 강진연
서울 서초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원제영 & 김형보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IBO & 금융컨설턴트



최혜진
서울 노원구
한국암웨이 IBO



최화연 & 이규상
충북 청주시
한국암웨이 IBO & 벤처기업운영

SAPPHIRE

한연희 경기 안양시 / 한국암웨이 IBO

RUBY



2007년 8월 1일부



고희탁
부산 연제구
회사원



구연희
울산 북구
한국암웨이 IBO



권정숙
울산 울주군
요기원장



김옥선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IBO



민옥연 & 성정환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IBO



박지은 & 정운철
경남 사천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백애 & 황도석
경기 부천시
연극인 & 한국암웨이 IBO



서현미 & 황규훈
경남 거제시
한국암웨이 IBO & 운수업

RECOGNITION

RUBY



2007년 8월 1일부



신애순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안사라
울산 울주군
한국암웨이 BO



안희진
경남 마산시
강사



안희진 & 이창훈
충북 보은군
강사 & 의사



오유미 & 김명훈
서울 광진구
한국암웨이 BO & 의사



유미애 & 신홍식
울산 중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윤상란 & 박천규
충북 청주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전진욱 & 안홍희
경기 남양주시
전업주부 & 자영업



정익환 & 윤경애
경북 영천시
자영업 & 한국암웨이 BO



정진천 & 이애순
전북 익산시
자영업 & 회사원



최은희 & 박현욱
울산 울주군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최진애
경기 부천시
한국암웨이 BO



최천주 & 강아구
전남 순천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현은정 & 신승주
경기 군포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한정환 & 이대희
서울 마포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현미희 & 최항우
경기 수원시
회사원 & 자영업



황종희
경기 평택시
한국암웨이 BO



박승란 & 신덕규
경기 상주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최진복 & 정은영
경기 고양시
건축관리 & 한국암웨이 BO

2007년 6월 19일부



강영미
경남 진주시
한국암웨이 IBO



강정순 & 이유상
서울 송파구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관경희
경북 포항시
한국암웨이 IBO



감귀옥 & 천종석
대구 수성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감기현 & 박미녀
부산 북구
자영업 & 한국암웨이 IBO



감남희 & 최경규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감락희 & 박규웅
서울 송파구
디자이너 & 자영업



감미숙 & 감승중
경기 평택시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감경훈 & 박은숙
대구 달서구
회사원 & 자영업



감성경
대구 서구
회사원



김세나
서울 송파구
보험대리점



김오숙 & 사창일
울산 동구
한국암웨이 IBO & 호텔조리사



김은혜 & 이형식
부산 남구
회사원



김은석 & 김상민
경기 남양주시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김현욱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IBO



문한성 & 이정순
서울 송파구
한국암웨이 IBO & 부동산 중개업



박계석 & 권종근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IBO



박기억
대구 북구
회사원



박은경 & 김정태
경북 구미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서미선 & 김동령
부산 중구
한국암웨이 IBO & 파티쉐



송영경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IBO



신미정 & 여경구
대전 서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신은숙
경기 안양시
한국암웨이 IBO



엄경혜
경기 김포시
한국암웨이 IBO



오형근 & 이경자
서울 노원구
자영업



유영순
경기 평택시
한국암웨이 IBO



이경미 & 안병구
경기 용인시
자영업



이민soon & 정연순
대전 서구
간호사 & 자영업



이상현
서울 노원구
한국암웨이 IBO



이수미
경북 포항시
자영업

RECOGNITION

PLATINUM



2007년 8월 1일부



이수정
대전 중구
한국암웨이 IBO



이은도
경기 수원시
한국암웨이 IBO



아이선 & 김은주
광주 남구
회사원 & 자영업



이정아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IBO



이정은 & 차성호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이진희 & 이문갑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장인석
부산 남구
건설업



장혜숙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IBO



정호영
경기 고양시
회사원



전점욱
경남 마산시
피부관리사



정수진 & 윤용락
서울 강서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정은희 & 고재환
충북 옥천군
한국암웨이 IBO



조연홍
경기 성남시
한국암웨이 IBO



조옥윤 & 이호진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진경화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IBO



천부근 & 정미화
부산 부산진구
회사원 & 한국암웨이 IBO



최명남
대전 서구
한국암웨이 IBO



최현주 & 이대영
경기 오산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하삼욱
대구 서구
회사원



한경혜
인천 계양구
한국암웨이 IBO



한정은 & 김진환
서울 강서구
한국암웨이 IBO



한지혜
경기 용인시
일본어통역



홍난희 & 김기태
충북 청주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홍유영 & 이운길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황현아 & 박민철
대구 북구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배삼숙 & 박종안
부산 영도구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2007년 7월 1일부

PLATINUM



2007년 8월 1일부

PLATINUM

강진경 부산 해운대구 / 학습지교사
김구자 경기 시흥시 / 한국암웨이 BO
김기연 & 박경애 서울 양천구 / 회사원
김진형 인천 남동구 / 자영업
신미정 경기 광주시 / 한국암웨이 BO
윤왕중 대전 중구 / 한국암웨이 BO

윤영희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BO
이아라 경기 용인시 / 한국암웨이 BO
이영미 부산 해운대구 / 한국암웨이 BO
이영애 경기 수원시 / 한국암웨이 BO
이효정 부산 해운대구 / 상담교사
장연향 광주 남구 / 전문직

장유진 강원 원주시 / 전문직
최병희 서울 마포구 / 회사원
최정심 경기 성남시 / 한국암웨이 BO
한홍교 & 조종연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BO
황용경 & 차남오 부산 사하구 / 한국암웨이 BO

GOLD PRODUCER



2007년 8월 1일부

강은희 & 박주환	김명자	김원자	박지현 & 이정만	신재웅	윤왕수 & 류희창	이지은	전정숙 & 노승인	황명희 & 전약수
고연옥 & 유창명	김문자	김은득 & 김연곤	박천순	심장수 & 김광호	이난협 & 허성욱	이창희	장영희	황은주 & 전재호
곽영주 & 김성용	김미숙 & 김영권	김효경 & 임재홍	박혜정	양정윤	이영화	이향희	장재식	황종대 & 김순임
구선미	김분비 & 황희택	나애용 & 김현석	변희경	양정화	이윤선 & 권영동	장만철	최영주	
김대심	김신용	문낙원	송명희 & 김치원	유미숙 & 정한수	이정분	전미정 & 박상희	한효심	
김덕순 & 임경석	김용석	박미숙	신배돈 & 박명화	윤나영 & 오형인	이정숙	전복덕	홍광석	

SILVER PRODUCER



2007년 8월 1일부

고경연 & 강석진	김영주	김진희 & 김현삼	박미숙 & 이병주	서용중	이광순	이재용	정연희 & 강정호	한미영
공순영 & 손순용	김영태 & 임현주	김준근	박민선 & 이봉희	서효명	이금수	이재환	정은주 & 강병수	홍정우 & 구지숙
곽은영 & 정부관	김옥남 & 유창석	김준희	박봉욱 & 조영곤	성윤석	이명심 & 조경훈	이종근 & 김영진	정정희 & 오현두	황균용
권미정	김동환 & 김지영	김명수	박선미	신민철	이미란	이주옥	정희석	황수정
김건배 & 조은경	김원경	김한생	박승미 & 김주혁	신백우	이복선	이향숙	조광순 & 이은길	
김경미	김유경	김호철	박영혜	신수찬	이순자 & 김두삼	임소현	차은희	2007년 3월 1일부
김경수 & 조영두	김은주 & 유원희	남도호	박인자	신장대	이승석	임용일 & 정주은	최문영 & 우정자	김상수 & 박명집
김경순 & 이상준	김민정	문우정 & 윤의철	박지혜	양은진 & 오기철	이연자	임은영	최순임	
김동완	김정경	민성자	박찬훈	오창덕	이영자	장미경	최종철	2007년 7월 1일부
김명곤	김종철 & 박지영	박경관	박태수 & 강정미	유달남	이은영 & 김동준	장병천	최현희 & 이은철	이승우 & 이영희
김미향	김준수	박대희	반영자	유한국	이재숙	장춘삼	최혜선	
김수희 & 류성희	김지숙	박영진	변상미	이강영	이재명	전경애	최희숙	

※ 레코그니션에 실릴 사진은 우편(서울시 강남구 대치 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8층 한국암웨이 아마그램 담당자 앞)과 이메일(amagram@amwaykorea.co.kr)을 통해 접수합니다.